

광주 도심 ‘잊혀진 전쟁유적’ 곳곳...“조명 서둘러야”

日강제동원 시민모임 답사 가보니

화정·쌍촌동 일원 연료고·병거 등

관리 주체 산발적...사실상 방치

외국인 답사자 “보존·조사 시급”

“광주 도심 속에 전쟁 유적이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지역민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고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과 정확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지난 2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주최로 진행된 광주 서구 일대(화정동·쌍촌동) 일제 전쟁 유적 답사에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이날 답사는 국내의 연구자와 외신 기자, 일반 시민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학생운동 기념회관 인근 연료고와 구 506보안대 인근 병거 2곳 등을 둘러봤다.

각 유적은 올해 8월 ‘日 군사 요새 추적·서남 해안’은 전쟁지리였다’ 기획보도를 통해 이곳들을 집중 조명했던 KBS 기사가 안내했다.

첫 답사지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사이의 ‘학생독립로’를 5분 정도 올라간 후 모습을 드러냈다.

붉은 색으로 칠해진 철문 위는 콘크리트로 덮



지난 22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주최로 서구 화정동과 쌍촌동 일대에서 ‘일제 전쟁유적 답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쌍촌동 한 병거 안을 둘러보고 있는 참석자들. /윤찬용 기자

여 있었고 그 위는 흙으로 도포된 상태였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연료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게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철문을 통해 들어간 3연료고(동굴)는 고요했다. 내부는 약 80m 정도였고 직선으로 뻗어 있었

으나 아치형을 띠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물이라는 게 느껴졌다.

안내를 맡은 KBS 기사는 “이 지역은 1945년 일본이 패전을 앞두고 광주 항공기지를 확장하며 군사 시설물을 대거 조성한 곳”이라며 “정확한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러 사

료를 대조해 시설의 의미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 등의 노력 덕에 현재까지 화정동·쌍촌동 일대에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유·탄약 등을 숨겨두기 위해 일본이 판 7개의 동굴이 발견됐다.

이 중 일부는 ‘ㄱ’자 모양의 특이 구조이고 연료고와 폭탄고가 함께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도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동굴 대부분 관리 주체가 있긴 하나, 산발적이라 사실상 방치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찾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인근 1~3연료고는 기본적인 배수 시설도 갖추지 않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다. 이 탓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침범하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에 대해 한 탐방객은 “지금 상태가 유지되면 몇 년 안에 구조물 일부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유실되기 전 최소한의 보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걱정했다.

이후 쌍촌동으로 이동한 답사자들은 구 506보안대 인근 병거 2곳을 둘러봤다.

이곳 병거들은 당초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곳으로 추정됐으나, 시민모임 등의 조사를 통해 일본이 사용한 시설로 특정됐다.

니콜라이 콘센 영국 런던대학교 박사는 “한국의 식민지·전쟁 유적은 외부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며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유적을 조사하고 공유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후쿠오카 시즈야 일본 마이니치신문 기자도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학술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찬용 기자

‘판짓하다’ 여객선 좌초시킨 항해사·조타수 구속

해경, ‘선원법 위반’ 선장 구속영장 신청

관제사 업무 수행 여부 대해서도 확인중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킨제누비아2호의 일동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데 이어 해경이 여객선 선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킨제누비아2호 선장 A (60대) 씨에 대해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6분께 신안군 죽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킨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협수 구간에선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목포해경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 된 일동 항해사 B(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40대) 씨를 중과

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는 선박 조종의 수동 전환 등 임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결정에 앞서 이뤄진 심사 전 B씨는 “놀라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C씨는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 전방을 살펴본 것은 B씨의 업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신병을 확보한 목포해경은 좌초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사고 당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에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항한 킨제누비아2호는 목포항 도착을 약 45분 남기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죽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

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목포=정해선 기자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 기였던 2022년 퇴직자수 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수를 보면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으로 52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 /연합뉴스

‘특약’ 근거 계약금 안돌려준 음식점 민사 패소

법원 “약관 규제 법률상 무효”

음식점 측의 자체 특약을 근거로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한 소비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남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B음식장을 상대로 낸 계약금 환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음식점이 A씨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음식점을 약 10개월 앞둔 지난해 11월30일 B음식장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그러나 B 음식점은 자체 특약을 근거로 연회장 계약금 환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이라며 A씨가 지불했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기한 내 환불을 진행하더라도 상당비 30만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비자 기본법령 등에 따라 제정된 품목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근거로 B 음식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준에는 예약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 통보 시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명목이 없다.

재판부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는 특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휴대폰 안바꿔줘” 집에 불지른 여중생 검거

북부경찰서는 23일 부모와의 다툼을 벌인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여중생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14·여)양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께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자택 방 안에서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붙인 혐의다.

이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확산해,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1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찬용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 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